

미래 문화예술 인재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신규 단원 12~19일 온라인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예향의 전통을 잇고 미래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신규 단원 모집에 나선다. 모집 대상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로, 음악과 예술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실기 및 면접 전형은 1월 24일 전문문화체험전수관에서 열리며, 실기(80점)와 인터뷰(20점)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단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

단원으로 활동하며, 매주 파트별 오케스트라 합주 교육과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예술단원은 정기 기공공연과 국내·외 초청공연 등 연 3회 이상의 무대 경험은 물론, 방학 기간 하계 집중교육과 신학기 캠프 등 다양한 교육·공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단원 과정은 저학년 어린이의 기량과 합주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며, 평가를 거쳐 예술단원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연습생 과정은 음악에 흥미는 있으나 교육 기회가 적었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초 실기 교육을 실시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팀(063-290-6448)으로 문의하

면 된다. 유영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은 “어린이 예술단은 단순한 음악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무대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성장의 공간”이라며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술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전북 문화예술의 미래 주역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은 200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창단돼 25년간 운영되며 수많은 단원을 배출해왔다. 이곳을 거친 단원들은 전문 예술인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국내 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14)

왜 이렇게 가렵지?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그들 또한 앞서 몽둥이와 곡괭이, 축창과 도끼에 의해 도살된 남준의 아버지 강병도와 어머니 신동택처럼 검은 가을 하늘을 향해 단발마의 비명을 날리고 허공을 움켜쥐며 차가운 땅바닥에 목숨을 힘없이 놓쳤다. 명희는 삼육현장을 더 지켜볼 수 없었다. 불현 듯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저들에게 발견되면 남준도 삼육될 게 틀림없었다. “얼른 여기서 도망가자. 만약 들기라도 하면 남준이 너도 죽을 수 있어.” 명희는 남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남준은 명희의 손에 이끌려 일어났고 명희는 산 반대편으로 남준의 손을 잡고 움직였다. 이곳에 남아 있다면 박대우 일행이 사라지면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의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했지만, 그런 여유는 남준의 머리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 온통 공포와 두려움으로 머리는 터질 것처럼 팽창되어 있었다. 가급적 길을 버리고 산길을 택해 이동했는데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산속을 이동했다. 산 하나를 넘었을 즈음 명희와 남준은 걸음을 멈추고, 남준은 무너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 어어머! 어어머!” 남준은 그동안 꼭 눌러놓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절망과 두려움, 안타까움 등으로 범벅된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졌다.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었다. 우는 것 말고는 남준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명희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물에 남아 있는 수분을 모두 눈물로 끄집어 올려 울던 남준은 손톱으로 팔뚝을 긁었다. 팔을 긁더니 배와 다리와 등쪽을 긁어냈다. “왜, 왜 그래?” 명희는 갑자기 온몸을 긁어대는 남준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가렵지? 가려워죽겠어.” 남준은 웃 무로 긁어냈는데 시원하지 않은 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긁었다. “뒤편 돌린 거야?” “모, 모르겠어.” 남준은 조금 전 목격했던 처참한 상황은 잊은 듯 물 여기저기를 긁어냈다. 명희는 그런 남준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몸부림칠 것처럼 긁어대더니 긁는 거마저도 지쳤는지 남준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헐떡거렸다. “우리집으로 가자.” 명희는 남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남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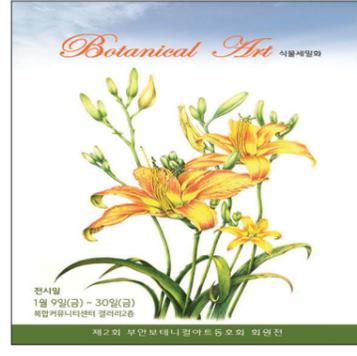
은 몸을 일으켰지만 선뜻 명희를 따라나서지는 않았다. 명희는 눈으로 재촉했다. “만약 황전으로 갔다가 그 사람에게 들기라도 하면 가만 놓아두지 않을 거야. 또 명희 네가 나를 숨겨줬다고 알려지면 너도 그렇고 부모님도 많이 곤란할 거야.” 남준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명희도 주저되었다. 박대우 일행은 창고에 기둥 50여 명을 인정사정없이 죽여버렸다. 만약 남준이 그들 눈에 띄었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남준을 숨겨줬다가 알려지면 명희 입장도 난처해질지 모른다. “황전 뒷산으로 가자. 거기서 기다려. 내가 집에 가서 먹을 거랑 옷가지들 가지고 올게.” 남준과 명희는 어두운 산속 길을 따라 황전으로 이동했다. 사람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사방이 터져 있는 논밭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황전 뒷산까지 온 명희는 남준을 산에 남겨두고 집으로 내려갔다. 늦은 밤에 명희가 돌아오자 연기막은 세 모눈을 뜨고 왜 이제야 집에 들어오냐고 핀잔을 했지만 명희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에 들어가 밥과 반찬을 작은 바구니에 담았고, 방으로 들어가 남준이 입을 만한 옷을 찾아 바구니와 함께 보따리에 싸서 밖으로 나왔다. 연기막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산으로 올라온 명희는 보따리를 남준 앞에 풀었다. “배고프지. 어서 먹어.” 남준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인지 고개만 좌우로 저었고 의욕을 잃었는지 침울한 표정을 풀지 못했다.

부안 보테니컬아트, 제2회 동아리 회원전 개최

30일까지 터미널 복합커뮤니티센터 갤러리2층서 진행

부안 보테니컬아트(식물, 세밀화)(지도자 강정숙)에서는 9일부터 30일까지 터미널 복합커뮤니티센터 갤러리2층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테니컬아트 동아리전시회는 2024년 첫 전시회를 통해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작품 42점, 습작 40점으로 2회 전시회를 연다. 부안군 유기종기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보테니컬아트 수강생들의 작업이 색연필로 식물의 형태와 색상을 일찍, 습작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밀하게 표현하는 기법으로 만들어진다. /부안=김석진 기자

특히 2025년에 신설된 주간반과 저녁반(직장인)이 운영되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 전시회가 펼쳐진다. 수강생에 따르면 “취미생활로 색연필 세밀화를 그리며 소소한 즐거움과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날려 버릴 수 있어 행복하다”며 “생애 최초 전시회를 하게 되어 씩씩하기도 하지만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테니컬아트 회원들은 강사의 도움으로 작년보다 더 보완되고 디테일한 작업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을 선보이며, 신입회원들도 작품 또한 선보인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보테니컬아트 동호회 회원전 포스터

전북대병원, ‘전북의 비경’ 사진전 개최

전북대학교병원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에게 전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진전을 마련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의 자연과 도시, 문화유산의 숨은 매력을 담은 ‘전북의 비경(秘境)’ 사진전을 오는 30일까지 어린이병원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문화사진연구회(대표 박종관)가 주관했으며,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전북 곳곳의 풍경과 일상의 순간을 담아낸 사진 작품 24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병원 공간을 찾는 이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와 위안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우리문화사진연구회는 2006년 창립된 민간



사진단체로, 병원 교수진을 포함한 1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주의 문화유산과 전북의 비경을 주제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며 지역의 숨은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전시해 왔다. /오상근 기자

전시 작품에는 옥구향고, 왕굴리 오층석탑, 피향정, 모악산과 구이저수지, 전주문화유산야행 등 전북의 자연경관과 도시 풍경, 문화유산을 담은 사진들이 고루 포함돼 있다. 각 작품은 전북 고유의 정취를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해 관람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사진전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전하는 문화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제2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6년 1월 8일(목)~1월 9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북특별자치도스키협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